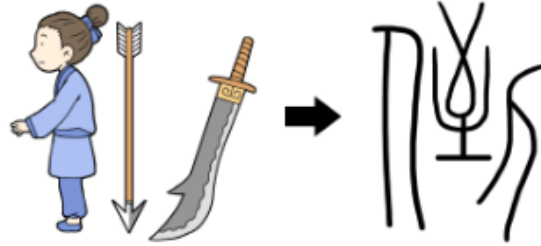


3(2)  
-  
91

회의문자 ①



倒

넘어질  
도:

倒자는 '넘어지다'나 '뒤집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倒자는 人(사람 인)자와 到(이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到자는 화살이 땅에 박힌 모습을 그린 至(이를 지)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것이다. 倒자는 이렇게 화살과 칼을 그린 到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사람이 화살이나 칼에 맞아 쓰러졌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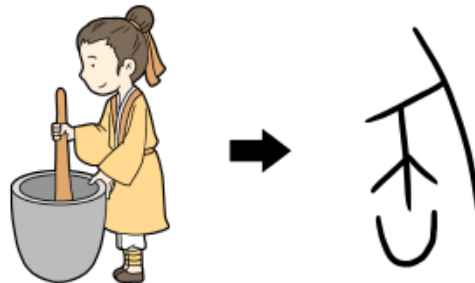
소전

倒

해서

3(2)  
-  
92

회의문자 ①



陶

질그릇  
도

陶자는 '질그릇'이나 '도공', '빚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陶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匋(질그릇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匋자는 절구질하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질그릇'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본래 '질그릇'이라는 뜻은 匋자가 먼저 쓰였었다. 陶자의 금문을 보면 절구 공이를 든 사람이 방아질 하는 匋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阜자를 더해지면서 질그릇을 구워내는 '가마'까지 뜻하게 되었다.

匋

금문

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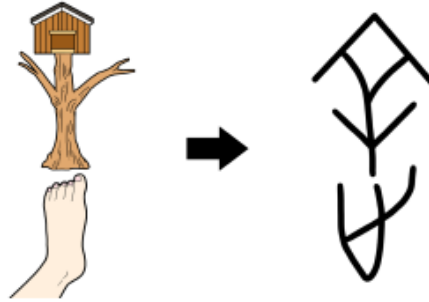
소전

陶

해서

3(2)  
-  
93

회의문자 ㉠



途

길[行中]  
도:

道자는 '길'이나 '도리',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道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首자는 '머리'라는 뜻이 있다. 道자는 길을 뜻하는 辵자에 首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다'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寸(마디 촌)자를 더한 導(이끌 도)자가 '인도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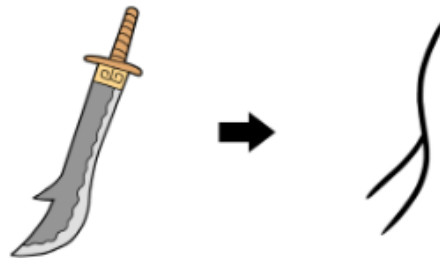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94

상형문자 ㉠



刀

칼 도

刀자는 '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칼을 뜻하기에는 다소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것은 고대에 사용하던 칼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이 칼에는 굽은 칼날 위로 뾰족한 날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적의 칼날을 부러뜨리거나 밀어내는 역할을 했었다. 刀자는 그러한 형태가 변화된 것이다. 칼은 물건을 자르거나 베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刀자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대부분이 사물이 갈라지거나 '공격하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刀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丩자 형태로 바뀌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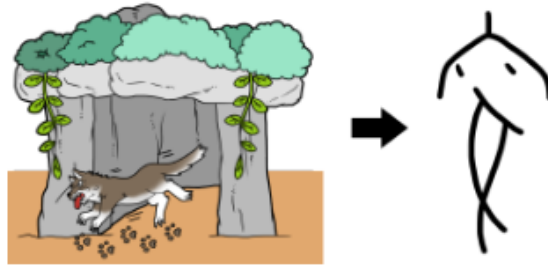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95

회의문자 ①



突

갑자기  
돌

窸자는 '갑자기'나 '쑥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窸자는 穴(구멍 혈)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동굴과 개를 함께 그린 것이 왜 '갑자기'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동굴은 깊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窸자는 어두운 동굴에서 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갑자기'를 뜻하게 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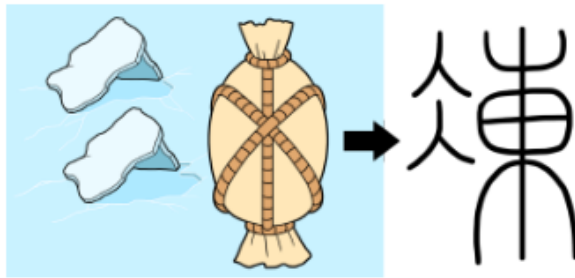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96

회의문자 ①



凍

얼 동:

凍자는 '얼다'나 '춥다', '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凍자는 冫(얼음 빙)자와 東(동녘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東자는 보따리를 꿰뚫어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凍자는 이렇게 보따리를 꿰뚫어 싸맨 모습을 그린東자를 응용해 너무 추워 움츠러든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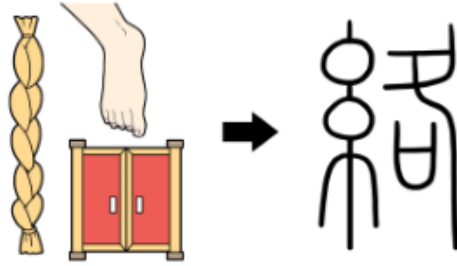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97

회의문자 ①



絡

이을/엮을 락

絡자는 '잇다'나 '엮다', '포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絡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발이 어느 지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각자'나 '따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 絡자는 이렇게 '각자'라는 뜻을 가진 各자에 系자를 결합한 것으로 '각자가 서로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絡자는 비록 떨어져는 있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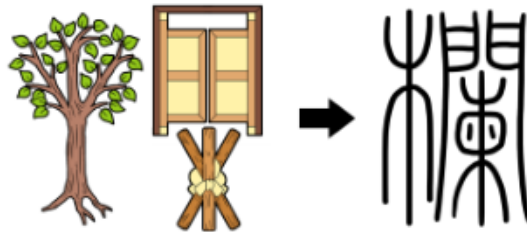
소전

絡

해서

3(2)  
-  
98

회의문자 ①



欄

난간 란

欄자는 '난간'이나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欄자는 木(나무 목)자와 闌(가로막을 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闌자는 문을 걸어 잠근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가로막다'라는 뜻이 있다. 欄자는 이렇게 '가로막다'라는 뜻을 가진 闌자에 木자를 더한 것으로 '입구를 가로막는 나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欄자는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사와는 분리된 별도의 코너라는 뜻이다.

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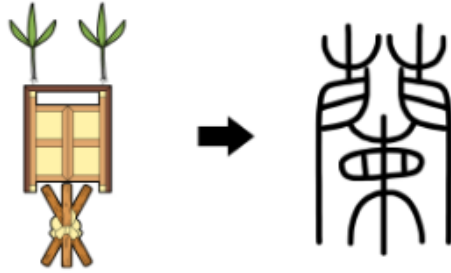
소전

欄

해서

3(2)  
-  
99

형성문자 ①



蘭

난초 란

蘭자는 '난초'나 '목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蘭자는 艸(풀 초)자와 闌(가로막을 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蘭자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여러해살이 식물인 난은 전 세계에 자생할 정도로 흔한 식물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蘭자는 문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난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다.

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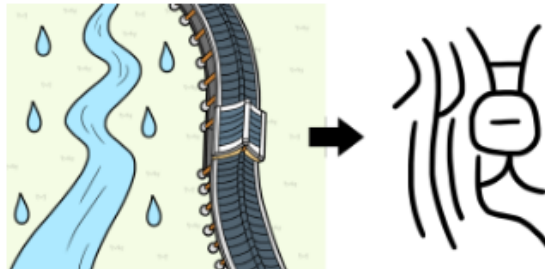
소전

蘭

해서

3(2)  
-  
100

형성문자 ①



浪

물결  
랑(:)

浪자는 '물결'이나 '파도', '유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浪자는 水(물 수)자와 良(어질 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良자는 대궐에 있는 긴 복도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량→랑'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浪자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물이나 강물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이미 '물결'을 뜻하는 글자로는 波(물결 파)자가 있지만 浪자는 이와는 달리 잔잔한 물결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표량하다'나 '방자하다', '허망하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浪

소전

浪

해서